

---

IT노동자 갈아넣는  
블랙기업 풀어비스  
디버그하겠습니다.

---

<주최>

정의당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참석>

류호정 정의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

임영국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

오세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장

서승욱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장

## I. 펠어비스에도 있었던 노동적폐

펠어비스는 ‘검은사막’이라는 게임으로 유명한 게임회사입니다. 회사에 따르면 펠어비스는 2019년 연결기준 연간 매출 5,389억원, 영업이익 1,538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33.1% 증가한 수치입니다.

펠어비스는 지난해 연말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기업입니다. 또한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 기여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가 선정한 ‘벤처천역기업’입니다. ‘초과 근무를 지양하는 회사’임을 장점으로 어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펠어비스는 다른 게임사에 비해 계약직이 많고 근무연수도 짧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3분기에 펠어비스의 기간제 노동자 비율은 26.3%입니다. 같은 시기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의 기간제 노동자 비율은 3.1%였습니다. 펠어비스의 평균 근속연수도 1.7년으로 매우 짧습니다. 엔씨소프트는 5.3년, 넷마블은 4.2년입니다.

3월 18일, 펠어비스의 재직자와 퇴직자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의 내용은 노동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다 하루아침에 잘라버리는 회사, 상사의 폭언이 이상하지 않고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게 일상이 된 회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방적이고 쉬운 해고, 대가 없는 장시간 노동, 갑질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IT·게임업계의 만연한 고용불안, 펠어비스에도 있었습니다.

펠어비스 노동자들의 증언을 모아 재구성했습니다. 회사를 떠나더라도 업계에 남아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은 노동자들이 믿을 구석을 찾아 증언을 남겼습니다. 어제까지 살인적인 초과노동에 시달리다 오늘 사직을 강요받는 어떠한 관행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게임은 즐거운데, 게임을 만드는 사람은 즐겁지 않다.”

그래서 바꾸고 싶습니다. IT 노동자 출신 정치인이 있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과 함께 증명하겠습니다.

## Ⅱ. 밥 먹듯이 하는 야근, 임금 미지급

제보 1. “직원카드는 출입용이고, 출퇴근 및 야근 기록은 구글 문서에 직접 쓰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쓰고 나면 얼마 뒤에 사라지기 때문에 저희는 근무기록을 가질 수 없어요. 회사만 알고 있습니다.”

제보 2. “야근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받기가 어려워요. 야근계를 올리면 ‘왜 하나’라고 물어요. 대답하기도 전에 ‘너 가라. 그냥 가’라고 해요. 그래서 집에 가면 다음 날 대놓고 면박을 줍니다. ‘넌 일을 그렇게 하고 집에 가고 싶냐?’라는 식이죠. 야근을 대하는 관리자들의 전반적인 태도입니다.”

제보 3. “야근하고 있을 때 가끔 관리자들이 ‘뭐해?’라고 물어봐요. 그럴 땐 ‘뭐 좀 정리하고 있어요’라는 식으로 야근이 아닌 것처럼 대답해야 합니다. ‘야근 중이에요’라고 하면 ‘야근계 올리지도 않았는데 누가 야근시켰어?’라며 면박을 주죠.”

제보 4. “다른 직원들의 근무기록도 서로 볼 수 있어요. 기록상으로는 다들 퇴근했는데, 사무실에 함께 앉아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자주 겪었습니다.”

제보 5. “겨우 승인받은 야근도 52시간을 초과하면 더 이상 기록할 수 없어요. 회사에서는 52시간을 넘지 않게 주의하라는데 주어지는 업무량은 야근을 하지 않고는 해낼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결국 기록 없이 일하게 됩니다. 이걸 따라가지 못하면 권고사직을 당하는 거예요.”

제보 6. “올해 들어서는 야근을 신청하는 게 더 어려워졌어요. 야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할 수가 없으니, 야근 없이 정상 근무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사실상 포괄임금제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야근은 곧 실력미달로 평가되는 사내분위기가 있습니다.”

제보 7. “직원들은 크게 L등급과 P등급으로 나뉘어요. 리더 등급인 L등급은 스톡옵션 등 ‘보상’이 있지만 일반 사원들이 속한 P등급은 아무것도 없어요.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서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그게 곧 인센티브라고 하더군요. 이런 마인드로 직원들을 굴리는 겁니다.”

### Ⅲ. 포괄임금제 대신 재량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 “신기술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분야에 한해 근로시간과 업무 수행 방식을 노사합의로 근로자 재량에 맡기는 제도로, 근로시간 배분을 근로자 스스로가 재량껏 결정하여 근무하는 유연근로시간제의 한 형태”

가. 노동자의 재량권 보장

나. 노사합의 (회사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

제보 1. “주 52시간제를 피하기 위해서 재량근로제를 도입합니다. 윗선에게 대상자들에게 '주말에도 나와라'라고 합니다. 저도 주 60시간을 넘겨 일했어요. 재량근로제를 거부하는 게 가능하지만, ‘그럼 재미없을 줄 알아라.’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개 직원이 거부하기는 힘듭니다.”

제보 2. “주 52시간을 자주 초과하는 사람들은 재량근로제를 해요. 바쁠 때 반 강제로 재량근로를 하게 되고, 안 바빠지면 다시 회수합니다. 계약서도 회사만 가지고 있어요.”

제보 3. “제 주위에 반강제적으로 재량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량근로 대상자가 되면 주말 출근은 물론이고 자다가도 출근을 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평소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지정됩니다. 그러다 권고사직을 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일회용품처럼 쓰이다 버려지는 거죠.”

제보 4. “근로자대표요? 들어본 적 없어요. 그게 인사팀장님은 아니겠죠? 고충위원회?”

제보 5. “꽤 오래 다닌 편이지만 근로자대표가 누군지 들어본 적 없어요.”

## IV. 신고해도 소용없는 직장 내 괴롭힘

제보 1. “회사는 수평적이라고 홍보하지만 수평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직적이고 강압적입니다. 재직기간이 긴 일명 ‘성골’들의 갑질이 심한 편입니다.”

제보 2.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있는 곳에서 소리 지르고 면박을 줍니다. ‘학원에서 뭐 배웠어’, ‘네가 뭘 알아’, ‘넌 내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해?’ 같은 말들이요.”

제보 3. “상의 없이 업무 내용이 바뀌기도 해요. 이를 전해 듣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다가 알게 되면 다시 면박을 들어요. ‘너 같은 애들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말해요”

제보 4.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면박을 주고 사라질 때도 있기 때문에 사내 괴롭힘을 입증할 증거를 모으기도 힘들어요. 하루 종일 녹음기를 켜놓고 지낼 수는 없으니까요”

제보 5. “경력직이든 신입이든 존중받지 못해요. 경력직에게는 ‘필터비즈만의 스타일’을 운운하면서 무조건 따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분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자존감을 박살 내는 말을 들어요.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여기 왜 들어왔냐’ 근처에서 듣고 있으면 기가 찹니다. 신입사원들이 위축되어 울다가 퇴사하는데 게임업체가 원래 이런 건 줄 알까 봐 걱정입니다.”

제보 6. “그런데 고충처리팀 담당이 부사장이예요. 갑질을 하는 사람들과 친한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신고해봐야 소용없을 거라는 생각부터 들죠.”

제보 7. “회사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을 하다 걸리면 인사평가에 반영돼요. 당일 권고사직도 만연하다 보니 잘려나갈까 봐 문제 제기도 어렵고요. 직원들이 모여있는 것도 안 좋아하다 보니 저희는 워크숍도 회식도 잘 없습니다.”

## V.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취급

\* 게임업계 매출 상위기업 비교 (2019년 3분기 기준)

회사명	평균 근속연수(년)	기간제 근로자(%)
엔씨소프트	5.3	3.1
넷마블	4.2	3.1
컴투스	3.2	7.7
NHN	3.3	2.5
네오위즈	4.47	3.5
웹젠	4.3	0.9
게임빌	2.53	12.3
베스파	1.2	0.3
한빛소프트	3.7	2.3
액토즈게임즈	3.4	0.7
엠게임	7.1	0
<b>펄어비스</b>	<b>1.7</b>	<b>26.3</b>
<b>평균</b>	<b>3.7</b>	<b>5.2</b>

제보 1. “원래 그랬기 때문에 왜 이번에 논란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회사의 말처럼 대량의 권고사직이 한 번에 된 것은 아니에요. ‘꾸준히 당일 해고를 밥 먹듯이 한다.’가 맞습니다. ‘안 맞는다.’, ‘실력이 없다.’ 등등 자존감을 하락시키는 발언을 한 뒤 사인하게 만듭니다. 근속연수는 상관 없어요. 모두가 공평하게 당일 통보입니다. 권고사직 중 당일 퇴사가 아닌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제보 2. “강도가 손에 칼을 들고 가방을 빼앗으려 할 때, 가방을 지킬 수 있을까요? 게임업계 노동자들에게 권고사직은 그런 거예요. 업계를 떠나려는 게 아닌 이상 강하게 반발하기가 힘들어요. 이직할 때 불이익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제보 3. “말이 권고사직이지. 해고나 다름없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매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인사평가 후 계약 연장이나 연봉 계약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권고사직을 통보하기도 해요. 제가 봐온 서너 번의 경우를 보면 그저 ‘리더그룹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가 문제였습니다.”

제보 4. “해고가 결정되면 뒷사람들은 마주치지도 않아요. 인사팀이랑만 대화하고 끝납니다.”

인사팀은 ‘회사의 방향성과 맞지 않아서’, ‘소통이 잘되지 않아서’와 같이 불분명한 사유로 권고사직을 합니다. 전날까지도 야근하면서 일을 해왔는데도 말입니다. 인사팀장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서 그런 건지 상식적인 절차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어요.”

제보 5. “부당해고라며 항의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인사팀장 본인도 부당해고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지만 당신이 더 피곤해질 거라고 하더군요. 저 하나가 신고한다고 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력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제보 7. “매일 같이 야근을 하다 보니 근처로 이사 오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의 복지 중에 주거 지원 50만원이 있기도 하거든요. 당장 잘릴 줄 모르고 이사한 후 권고사직 받으면 당장 주거비부터 걱정하게 돼요.”

제보 8. “정규직들은 권고사직이고, 비정규직은 계약 연장이 안 됩니다. 비정규직은 퇴근하면 눈치를 더 받아요. 퇴근을 일찍 하면 뒤돌아서 욕을 하기 때문에 퇴근도 제때 못하고 갈려 나가는데 계약 연장은 안 시켜주는 식이죠. 비정규직으로 싸게 뽑아서 한두 명만 전환하다 보니 신입들이 고생은 있는 대로 다 하고 잘립니다.”

제보 9. “오전에 권고사직을 통보 당하고 바로 인사팀 가서 사인하고 당일 퇴사했습니다.”

제보 10. “제 옆자리가 나가는 것도 몇 시간 전에 알아요. ‘저 오늘 나가래요. 안녕히 계세요.’ 이런 대화가 이상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야근했는데 당일 통보받아서 서럽게 울던 분도 생각나네요.”

## VI. 펠어비스만의 문제인가?

정의당 IT노동상담센터(디버그) 등이 실시한 ‘2017 게임산업종사자 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크런치 모드<sup>1)</sup>와 포괄임금제로 대표되는 장시간 저임금 체계 하에서는 우울증과 자살 생각 위험비율이 높았으며 작업장 폭력 또한 심각합니다. 게임업계 노동자의 84.2%가 크런치 모드를 경험했고, 4명 중 1명은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크런치 모드 중에는 하루 평균 14.4시간 근무하고, 평상시에도 일주일 평균 50.8시간 근무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만연합니다.

지난 2016년, 게임업체 넷마블에서는 1주 100시간에 가까운 초장시간 노동을 지속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넷마블은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IT업계 전반에 기획감독이 실시되어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가 내려졌습니다.

2018년, 유명 인터넷 강의 업체 에스티유니타스에서는 과도한 업무, 잦은 야간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호소한 후 과로 자살한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장시간 노동, 포괄임금제 악용,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 누락 등 각종 위법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이후 검찰 수사를 앞두고 개선방안을 마련, 법정 노동시간 준수와 야근을 근절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네이버, 넥슨, 스마일게이트, 카카오와 같이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대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더 많은 곳에서 여전히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괄임금제 폐지는 요원하고, 거꾸로 재량근로제는 확대 가이드가 발표되었습니다.

정의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회는 IT노동상담센터(디버그)를 통해 추가 사례를 취합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를 제도화하고, 재량근로제 확대 가이드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52시간제 위반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더 큰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IT노조들과 연계하여 IT업계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

1) 크런치 모드 : 게임 출시나 게임 이벤트를 앞두고 야근과 밤샘을 반복하며 근무하는 것



## 참고자료 I. 개요

### 1.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근로기준법 위반

- 1) 출·퇴근 기록에 대한 관리 없이 공짜 노동, 장시간 노동 강요
- 2) 포괄임금제 폐지로 생색, '재량근로제' 악용으로 공짜 노동, 장시간 노동 유발
- 3) 일방적이고 쉬운 해고 (권고사직을 빙자한 부당 해고)

### 2. 개선이 필요한 조직문화 문제점

- 1) 소화하기 어려운 업무량 부여 → 인사평가에 악용 소지가 크고, 장시간 노동의 주요 요인,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 2)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문화 팽배

### 3. 근속연수 낮고, 기간제 노동자 비율 높아 : 고용불안

- 1) 기간제 노동자 비율(26.3%)이 업체 평균(5.23%)보다 5배 높아 → 쉬운 해고가 가능하며, 정규직 전환을 기간제 노동자의 통제와 압박 수단으로 활용
- 2) 근속연수(1.7년)가 타 업체(3.7년)에 비해 낮아 → 장기근속 유인이 거의 없다는 반증

### 4. 대응 방안

- 1)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 요구
- 2) 펠어비스의 개선 방안 발표 및 이행 요구 → 고용노동부는 펠어비스의 약속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 3) 추가 사례 취합 (구글 설문, SNS 사례 제보 등)
- 4) 당사자와 비공개 간담회 개최

### 5. 해결방안 :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 1) 포괄임금제 폐지 제도화
- 2) 재량근로제 확대 가이드 폐지
- 3) IT노동자들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 4) 52시간제 위반 등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 실시
- 5) IT노동조합과 연계, IT업계 노동조합 설립 지원

## 참고자료 II. 기자회견문 전문

정의당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오늘, 블랙기업 펠어비스의 노동 실태를 고발하고 IT 청년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의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 류호정입니다.

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중견 게임회사 ‘펠어비스’의 재직자와 퇴직자로부터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은 펠어비스가 권고사직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포괄임금제를 피해 재량근로제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자들을 공짜노동과 장시간 노동에 내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장 내 갑질 문화에 대한 증언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유명 게임회사 ‘넷마블’에서는 1주 100시간에 가까운 초장시간 노동을 지속하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2018년, 유명 인터넷 강의 업체 에스티유니타스에서는 과도한 업무, 잦은 야간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호소한 노동자가 자살했습니다. 청년 노동자들이 비극적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이번 제보 안에도 담겨있었습니다.

“겨우 승인받은 야근도 52시간을 초과하면 더 이상 기록할 수 없어요. 회사에서는 52시간을 넘지 않게 주의하라는데 주어지는 업무량은 야근을 하지 않고는 해낼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결국 기록 없이 일하게 됩니다. 이걸 따라가지 못하면 권고사직을 당하는 거예요.”

“주 52시간제를 피하기 위해서 재량근로제를 도입합니다. 워선에선 대상자들에게 '주말에도 나와라'라고 합니다. 저도 주 60시간을 넘겨 일했어요. 재량근로제를 거부하는 게 가능하지만, '그럼 재미없을 줄 알아라.'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개 직원이 거부하기는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있는 곳에서 소리 지르고 면박을 줍니다. ‘학원에서 뭐 배웠어’, ‘네가 뭘 알아’, ‘넌 내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해?’ 같은 말들이요.”

“강도가 손에 칼을 들고 가방을 빼앗으려 할 때, 가방을 지킬 수 있을까요? 게임업계 노동자들에게 권고사직은 그런 거예요. 업계를 떠나려는 게 아닌 이상 강하게 반발하기가 힘들어요. 이직할 때 불이익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놀랍지 않은 증언들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해 IT·게임 업계에 종사했던, 종사하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은 권고사직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IT·게임 업계에서 권고사직은 사실상 해고입니다. 우리나라가 주 52시간 상한제를 도입한 것은 무엇보다 장시간 노동이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환경은 소수의 누군가에게는 천문학적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천국이였겠지만, 많은 노동자에게는 지옥입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제도로 완성하고, 재량근로제 확대를 종용하는 가이드를 폐지해야 합니다. IT노동자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은 그나마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IT 업계에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의당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고용노동부와 펠어비스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펠어비스는 권고사직 대상자에 대한 복지를 약속하십시오. 펠어비스는 논란이 일자 “권고사직 대상자에 대한 복지 혜택 중단을 유예하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거주 지원금을 받고, 무리하게 이사했다 퇴직 후에 월 50만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취업지원금은 물론, 거주비, 양육지원금 등 광고하듯 자랑하던 복지혜택을 이미 내쫓아 버린 노동자들에게도 부여해야 합니다. 진정 어린 사과인지를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용노동부는 블랙기업 펠어비스에 대한 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십시오.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간과할 수 없는 숫자의 제보와 증언이 모였습니다. IT 업계는 무엇보다 노동자의 창의성을 필요로 합니다. 노동권 보장 없이는 국민 행복도, 기업 성장도 없습니다.

셋째, 펠어비스는 스스로 만든 조직문화를 깨부수고 결자해지에 나서십시오. 인사노무관리 체계 전반에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당사자인 노동자들, 실력 있는 외부 전문가들과 협의해 고안하고 공개하며, 약속하십시오.

넷째, 고용노동부는 펠어비스의 약속에 대한 이행 점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해 주십시오. 시끄러운 잡음이 수그러들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그간의 기업문화에 대한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IT 노동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정의당 IT 노동상담센터 ‘디버그’를 기억해 주십시오. 추가 제보를 받겠습니다. 버그를 지나치는 개발자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